

26년간을 외롭고 끈질기게科學의 대중화를 위해 대중용 敎養科學 서적을 발간해온 孫永壽씨(56세·電波科學社 대표).

孫씨가 科學書籍을 펴내기 시작한 것은 1956년. 원래 무선기술자로 군에서 통신학교 교관을 지내기도 한 그는 그 당시 일반인이 읽을만한 대중용 과학서적 하나 제대로 없는 실정이어서 우선 자신이 할 수 있는 분야에 손을 대기로 마음먹고 다른 사람과 같이 집필한 「初等無線工學」이란 책을 출판하려고 했는데, 이 책을 맡아 출판해줄 출판사가 나서지 않았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이 출판해야겠다고 나선 것이 계기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것.

電子技術분야의 책을 중심으로 대중용 과학서적을 출판하는 한편 「月刊電波科學(月刊電子科學前身)」을 20여년간 한번도 휴간없이 발행해 오다가 후진에게 물려주었고, 7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電子圖書를 출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앞으로 기술이 절실히 필요할 것인데, 우선 필요하면서 가까운것이 電子분야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고.

특히 「기술분야 및 과학분야는 기초과학이 튼튼히 다져져야 한다」는 취지아래 교양과학도서를 출판할 것이라고.

「科學新書」는 일반독자들이 알찬내용의 책을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읽기쉽게 하기 위해 발간하게 되었는데 현재 121권(360권)까지 출판되었다는 것.

지금까지 電波科學社에서 출판된 책은 「부러僻韓國語版」 32권, 「科學送書」 8권, 「自然科學시리즈」 14점등 다양한 科學文庫를 발간해 왔고 앞으로 계속 續刊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孫씨의 著述도 「科學의 起原」 등 10종이나 된다.

이러한 반평생의 공적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제 7회 과학의 날에 과학진흥상, 서

울시문화상(출판부문), 한국잡지문화상, 한국잡지문화유공상, 국무총리표창, 홍조근정훈장, 화랑무공훈장 등을 받은바 있다.

孫씨는 특히 「일반국민의 과학에 대한 지식과 학계의 과학지식보급에는 격차가 있는데,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적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중적인 서적이 알차게 출판 보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科學의 씨부리기 26년。

모든 학문이 그렇지만 특히 과학은 단계적·체계적인 지식이 기초적으로 다져져야 하기 때문에 어려서 부터 국민학교→중고등학교→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인 맥락이 이어져야 한다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려운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쓰는 필력을 가진 집필자와, 이를 맡아 출판해줄 출판사와, 책을 읽어주는 독자의

三位一體가 되어야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집필가의 입장에서 볼 때 집필의 기회가 적을 뿐만 아니라 독서인구가 적어 발행부수가 적기 때문에 인세수입이 없어 집필의욕이 저하된 형편이며, 집필을 한다하더라도 영리성이 없어 출판을 맡아줄 출판사가 거의 없는 실정. 독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알

으며 앞으로도 밀고 나가겠다는 것.

한결같이 「과학의 씨를 뿌린다」는 마음으로 ① 꼭 읽혀야할 책 ② 꼭 있었으면 하는 책 ③ 꼭 있어야할 책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

그동안 술한 좌절감과 실의에 빠져 건강까지도 위태로와진적도 있지만 그때마다 주위의 격려와 「성실하게 살고 후회하지 말자」는 신념과 의지로 극복하기도 했다는 것.

「2000부를 찍어내면 2년이 걸려서야 겨우 바닥이 날 정도」라는 한마디가 그동안의 秘話를 대변해준다.

이런 중에서도 인세에 연연하지 않고 사명감으로 집필해주었던 집필가들의 격려와 헌신적 협조에 뜨거운 감사와 보람을 느끼기도 하며, 더욱 보람을 느꼈던 것은 독자중에 중학교때 과학신서를 읽고 과학의 길을 택해야겠다고 결심한 학생이 현재 S 대학 화학과를 다니고 있으면서 가끔 찾아주는 사실을 알고 드디어 과학의 씨가 싹이 트기 시작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몽클해졌다는 것.

오늘날 「기술진흥」 「과학입국」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지식의 저변확대는 물론 대중의 과학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더욱 대중용 과학서적의 확대보급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것.

앞으로 과학도서의 보급이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집필자의 집필의욕을 북돋우는 지원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과학서적에 대한 출판기피현상을 해소시켜주는 지원 및 혜택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서점의 대형화에 의한 전시공간의 활용확대를 통하여 독자들이 과학서적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독자의 확대를 유도하고, 독자의 계층별 수준에 맞는 다양한 내용의 과학서적이 출판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과학서적이 편집상 특성에 맞는 편집을 위한 소질있는 전문적인 편집자의 양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등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孫 永 壽씨

(電波科学社 대표)

기 쉽고 알찬 내용의 과학서적을 손쉽게 구할 수 없기때문에 자연스럽게 독서방향이 과학분야에서 멀어진다는 것.

그래서 기초과학의 씨를 뿌림으로써 독자층을 확대·개발하고, 독자가 늘어남으로써 집필자에게 집필의 기회와 의욕을 향상시키는 「독자와 집필가와의 징검다리」 역할을 출판사가 담당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버티어왔